

### 광산구민들, 어등산 골프장 우선 개장 반대 왜

## “광주시, 테마파크 동시개장 원칙 깬다”

광주 광산지역 주민들이 어등산 관광단지 내 ‘골프장’의 우선 개장을 반대하는 것은 ‘공익시설 개발’이라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 광산구 운수동 일원 273만㎡ 부지에 2015년까지 3400여명의 민간투자를 받아 테마파크와 특급·가족호텔, 체육시설(골프장 27홀) 등을 만들겠다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1951년부터 44년간 포사격장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삼능건설이 (주)어등산리조트란 이름으로 민간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이후 광주도시공사를 내세워 지난 2008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당시 전체 사업부지 273만㎡ 가운데 사유지 142만3000㎡(주민 297명)에 대한 토지보상을 벌였다.

하지만, 71만8512㎡를 보유한 89명의 주민이 협의매수를 거부했고, 시는 공익성을 들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았다.

당시 토지 소유주들은 “시가 토지매수를 위해 도시공사를 민간사업자와 공동 사업자로 끼워넣은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지역건설업의 침체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실제 사업자가 삼능→금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



광→모아→금광으로 사실상 4번이나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된다.

최종 사업자인 금광기업은 지난 5월 광주시에 자금난 등을 들어 골프장 우선 개장을 요청했으나 무산되자, 결국 시를 상대로 골프장 허가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배상과 사업자명 의변경소송 등을 내기에 이른다.

이때만 해도 시의 입장은 확고했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애초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 만큼 테마파크와 골프장이 동시 개장돼야 한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9월 어등산개발사업자는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경관 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27홀) 운영시 대중제(9홀) 수익을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기부토록 하는, 사실상 골프장 우선 개장을 허락한 강제결정 조정안을 내놨다. 광주시가 이 결정안을 받아들여서 끝



1. 빛과 예술센터/디자인센터 12. 잔디공원 23. 농구장  
 2. 빛의 전망대 13. 수변공원 24. 테니스장  
 3. 백년생령탑 14. 특급호텔 25. 승마장  
 4. 빛의 호수 15. 관광호텔/가족호텔 26. 주차장  
 5. 빛의 광장 16. 휴양랜드 미니엄 27. 접객시설(상가)  
 6. 야외공연장 17. 골프프린지 28. 주차장  
 7. 광주정신기념관 18. Fitness Club 29. 영구저류지  
 8. 식물원 19. 야외수영장 30. S.P.C 사무실/인센센터  
 9. 디지털 자연사 박물관 20. Open Deck 31. 허천  
 10. 어린이 과학체험관 21.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 32. 폐기를 처리시설  
 11. 사계화원 22. 게이트볼장

프장만 우선 개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광산구의회원은 “주민들을 위한 공익시설과 골프장을 동시 개장하겠다는 협약을 내세워 지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러한 협약이 깨지고,

골프장만 개장한 것은 엄연히 위법적 요소가 있는 만큼 주민들과 함께 배양된 재산을 되찾는 토지 환매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12월 결정된다.

### 무등산 국립공원 12월 결정된다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12월 결정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무등산이 걸쳐 있는 광주 동구, 북구, 전남 담양군, 화순군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산림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을 거쳐 최근 약 78km에 달하는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후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12월 결정된다.

## 광주 도시공원 85% 사라질 위기

‘공원일몰제’ 영향-2020년 7월까지 토지매입·조성해야  
오병운 의원 “중앙공원 등 국가·지자체 공동 조성 필요”

광주의 중앙공원 등 전국 지자체가 고시한 순수 도시공원면적의 85%가 ‘공원일몰제’ 때문에 오는 2020년 7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원일몰제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 지방의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운 의원은 24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지자체가 고시한 도시공원이 열악한 재정으로

오는 2020년 7월까지 토지 매입 및 조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라지게 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조성 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환경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다.”

파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광주광역시외의 경우 중앙공원(약 90만평)도 토지매입 및 조성이 이뤄지지 못하면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경우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복지 등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일본은 17개 대형 국영공원(약 100만평)을 국가가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가 조성중인 서울시의 용산공원처럼 지방에도 대형국가도시 공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춘진 의원 전남 친환경 농업 흔들...인증 취소만 5천건

전남도 핵심 정책인 친환경 농업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친환경 농업의 외형만 늘렸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탓이다.

또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해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전남도 친환경 농업의 구조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태다.

24일 김춘진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사후 관리조사를 한 결과 4840 농가가 인증 취소나 표시사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인증 취소된 2155 농가 중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취소 대상 면적도 4570ha로 2010년 2423ha의 1.9배 늘었다. 전국 취소 건수 9155건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이는 전남도가 무리하게 친환경 인증 면적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인증 면

적 등 각종 농자재와 보조금 지원 등 올해만 32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초제 등 농약사용 농가가 2093 농가, 영농기록 미작성 1713 농가, 화학비료 사용 107 농가 등 행정 처분 농가의 85.9%인 4157 농가가 인증이 취소됐다. 97 농가는 친환경 인증 사용정지를, 586 농가는 경고조치 받았다.

지난 2010년 인증취소된 2155 농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취소 대상 면적도 4570ha로 2010년 2423ha의 1.9배 늘었다. 전국 취소 건수 9155건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외형만 늘리지 말고, 유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고 인증 농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ah@kwangju.co.kr

## 광산구민들, 지역 정치권과 전쟁 선포

### 시민단체, 4개월째 파행 구의회 정상화 촉구 성명

광주 광산구 구민들이 구의회의 장기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역 정치권 인사를 짜잡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자질 미흡 의원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4일 광산시민연대를 비롯한 광산구 3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은 시민연대 사무실에서 “구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4개월째 파행으로 치달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구의회 파행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의정비

의원들 스스로 반납할 것 ▲자질 없는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할 것 등을 민주당 광주 광역시장에 촉구했다.

특히 해당 단체들은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들마저 구의회의 이 같은 파행에 수수방관하며 도리어 내부 파벌은 시민연대 사무실에서 “구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4개월째 파행으로 치달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구의회 파행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의정비를

을 조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시민연대 배영모 수석대표는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하면서 유권자인 구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구의회 파행을 비롯해 어등산골프장 문제 해결에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이 같은 구민들의 비난에 따라 지난 22일 주류특과 비주류특 의원들이 모여 구의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는 등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승렬기자 srchoi@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12월 결정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무등산이 걸쳐 있는 광주 동구, 북구, 전남 담양군, 화순군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산림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을 거쳐 최근 약 78km에 달하는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후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12월 결정된다.

### 김경협 의원 4대 강 보 구간에 연간 쓰레기 1만 톤 쌓일 것

민중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23일 ‘4대 강 보 신설로 연간 1만t이 넘는 쓰레기가 보 구간에 쌓일 것으로 예상’과 강 중심부의 쓰레기 문제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강 보 쓰레기 예상 발생량’ 자료를 보면 4대 강 살리기 사업 이후 연간 낙동강에 772t, 한강 1154t, 금강 995t, 영산강 660t 등 모두 1만531t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의원은 “보를 신설하면서 깊게 준설한 강 중심부의 저수로 구간과 유속이 느려지는 보 구간에 쓰레기가 쌓이게 됐다”며 “강 전체의 수질악화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간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4대 강에 모두 3976t의 쓰레기가 쌓였다. 이

중 보 사이 저수로에 쌓인 쓰레기는 전체의 35%인 1393t이었다.

보 구간의 쓰레기 처리를 맡은 수자원공사는 “강 중심부에 가라앉은 쓰레기는 손을 대지 못하고 유속이 느려지는 보 주변이나 곡선형 구간의 둔치 비탈면 등에서만 수거할 수밖에 없다”며 강 중심부의 쓰레기가 퇴적될 가능성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전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광주, 화순, 담양, 나주, 정성, 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왕)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권장업종**

- 1층 **농협, 카페메네, 편의점 입점 확정**
-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 6~7층 **전문학원**
-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준공 완료**

후안시아 호반베르디움 첨단2지구 토담빌딩

후안시아 주차장 주차장 롯데마트 연평리점

첨단2지구 입주 예정

시공 | **내로양건설** | 분양 및 임대문의 | ☎ 062-576-8938 · 016-885-0881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델하우스 10월 오픈**

TODAM huros Premium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하남공단 광주역대 한국농어촌공사 호남대학교 무진대로 상무지구 광주공항